

이렇게 들었다

기도

“온갖 번뇌 불살라 버릴 수 있다”

‘대인 수능시험’ 하면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수행법의 하나인 기도.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요즘 입장을 참회하는 삼천배기도법회가 전국의 사찰에서 열리고, 동인거(22일) 결계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수행자의 기도 소리도 들린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닌 수행과 성찰의 기회로서 기도에 관련된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보현행원품>

■ 능히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의우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주면, 가이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고 아늑다라삼삼보리 얻느니라. <금강경>

■ 마땅히 일념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립하여 호의(狐疑)함이 없거라. <반주심매경>

■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 있어서 육로를 걷는 것은 어렵고 수로를 배로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근행정진(勤行精進)이 있는가 하면, 신방편(善方便)의 이행도(易行道)를 통해 불퇴위(不退位)에 속히 이르는 방법이 있다. 만약 불퇴위(不退轉地)에 속히 이르고 싶거든,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 받들어야 한다. <십주비사론>

■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큰 불속에 떨어진다 해도 불이 태우지 못하느니라. 이 보살의 위신력에 맡기어 맡는다. 또 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경우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알은 곳에 곧 닿을 것이다. <법화경>

■ 아침에 관세음을 염하고, 저녁에 관세음을 염하여, 시시각각의 행위가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고, 부처님을 염하여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고난을 떠나고 몸을 떠나 온갖 재물이 무(無)로 돌아간다. <동수경>

■ 바르게 지리를 보아도 항상 부지런히 수습(修習)하지 않는다면 탐심(貪心)이 뒤섞이게 마련이다. <성실론>

■ 제천 제왕 인민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잡고, 역념수지(憶念受持)하여 그 불토에 태어나기를 구

하면, 그 사람이 죽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만약 어느 중생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들잡고 신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여, 비록 잠깐 사이라도 지성으로 회향(廻向)해서 그 불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대이타경>

■ 만약 지성으로 계념(繫念)하고 단좌정수(端坐正受)하여 부처님의 육신을 관상(觀想)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불심(佛心)과 같아져 부처님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번뇌속에 있을지라도 여러악의 가리우는 바가 되지 아니하며, 내세 어느 뎡가는 큰 가르침의 비를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불경>

■ 만약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지녀 겁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가 있어서 정곡(詭曲)함이 없다면, 늘 부처님을 앞에 있게 되리라. <심불명경>

■ 만약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여러 이름과 공덕을 일컬어 말한다면, 이런 중생들은 능히 어둠을 떠나 점차로 온갖 번뇌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보적경>

■ 누구든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느니라. 그러나 오역을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불설무량수경>

■ 열가지 큰 행원을 닦아야 하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엄정의 참회, 남의 공덕을 기뻐함, 설법을 청함,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보현행원품>

■ 내가 중생들을 관찰컨대, 부처님을 염(念)치 않는 탓으로 악취(惡趣)에 떨어져 생사의 윤회를 받고 있다. 만약 이를 깨달아 길이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환과(不還果)를 꼭 얻어 미혹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본사경>

열린마당

범불교 서명운동본부 토론회 ‘불교혁신과 자주화’

교단의 구태와 악습의 고리를 끊고 혁신과 자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정신과 실천력의 회복이 선행되고 출·재가 상호신뢰와 인정으로 방향성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정의와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불교 서명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백창기·박광서)는 1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혁신과 불교 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판결로 아기된 ‘불교 자주화’의 공론화를 위해 열린 ‘불교자주와 혁신을 향한 범불교대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김광식씨의 ‘20세기 불교교단의 자주화 문제’, 배영진씨의 ‘교단의 혁신과 불교자주화’ 발제문과 박수호씨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13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 혁신과 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

“잇단 분규 자주화 걸림돌”

김광식(대각사사부 연구부장)



일제하의 불교 교단은 사찰령 제제로 인해 그 설립 자체가 부정되었다. 다만 1929년 승려대회에서 제정된 중원체제와 1941년 등장한 조계종 체제는 교단의 외형을 띠었지만 한계가 적지 않았다. 8·15 해방이후에는 주로 교단의 주도권 및 그 대표자의 인정에 관한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불교정화의 추진, 1970년대 종단 대표를 둘러싼 분규 등이 단적인 예다.

일제하의 교단 운영은 인사권,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행정체제를 장악한 일제에 의해 구속을 당했다. 해방이후는 주로 운영의 자율화, 교단의 기반인 재산권의 보호 및 불교활동을 저해·억압·탄압하였던 각종 법령 및 정책 등이 교단 자주화의 대상이었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 관련법 철폐와 보완, 10·27 법난 명예회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주화의 추구는 불교계 내부의 한계와 모순, 권력지향의 속성, 분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 20세기의 교단 자주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해명하는 것은 21세기의 불교 자주화는 물론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출·재가 공동체의식 필요”

배영진(전불련 의장)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혁신을 이룩한 개혁가이다. 때문에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참회하며, 고뇌하고 정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님들은 출가정신의 견지와 수행행보 조성, 지계·인욕·포교정신의 고취, 위계질서의 확립(문중과별 타파, 막형막식승별도관리 등), 교단과 사회 운영 및 경영의 합리성 제고 등에 매진해야 한다. 재가불자들도 불교도의 의무를 자각하고 사회정의 실현, 공익활동 참여, 불교와 민족의 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혁신과 자주화에 대한 출·재가의 공동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단운영에 있어서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창구가 열려야 한다. 종단 운영에 상호부조, 상호신뢰, 상호인정하는 방향성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총무원 총무회의에 신도회 및 청년회 대표의 참석을 의무화 하거나, 중앙총회에 재가대표를 부분적으로 참여(또는 중회 양원화)시키는 방안이 한 예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조직을 내실화하고 활동을 전문화 활성화 해야 하며, 재가조직의 역할과 과제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교단 운영 합리화 급선무”

박수호(고려대 강사·사회학)



교단의 혁신과 불교 자주화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회조직’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구체적이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현시대와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재가의 내부적 불신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처님이 평생 ‘좋은 벗’을 자처하며 하심 했듯이 위계에 따른 관료제적 교단이 아닌, 사부대중 모두를 도반으로 인정하는 평등한 공동체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승가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계와 인욕의 생활화가 필수적이다.

교단과 재가불자들의 상호관계가 상호인정·상호신뢰·상호협력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의 합리화,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활동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결사운동도 필요하다. 불교 재단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형 포교전략을 위해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찻논 오는 날 길상사 들에 뿌려달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기라도 한 양 운영체제 하부전인 13일 길상사를 둘러보고 나중막히 이런 말을 했다는 김영한 보살. 30년대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가우에 능한 명기(名妓)로 최고 인기를 끌었던 김씨였지만 그는 세속의 영화와 부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어떻게 삶을 회향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었던 것 같다. 3년전 국내 최대 요청 중 하나였던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해 청정도량 길상사로 거듭나게 한 김 보살. 그 덕분 태어난 조경이 잘된 아름다운 절 길상사는 삭막한 도시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부처님품으로 인도하고,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인들의 참선용 수련을 도와주고, 맑고향기롭게 운동으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여러 일을 해오고 있어 서울의 대표적 수행도량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청정한 보시정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원각은 잇가 1천여대라는 그 천문학적 재산치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할유이 있다는 사실때문에 도 그가 떠난 이때 그 보시정신은 더욱 빛나 보인다.



이경숙 <취재1부장>

아름다운 회향

이 아니라, 가장 좋게 가장 넓게 나누는 삶을 보여주었다.

‘감투차지’ ‘물욕’이 근본 원인이라 비난 받았던 지안해와 최근의, 두차례의 조계종 분규를 겪은 불자들이기에 무소유를 실천한 그의 삶과 정갈한 마감이 더욱 향유가 연꽃과도 같은 청량한 아름다움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김영한보살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그처럼 회향하는 삶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절염 무료수술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가피나 일상생활의 행복감 등 부처님 품안이라 따뜻하기 이틀에 없지만, 정작 불교계 실상은 불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배우는 일이 다른 종교에 비해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아 독자사과 복지불사의 실천 차원에서 동인천길병원과 공동으로 퇴행성관절염 무료수술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고 눈이 확 열리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떠올리며 곧바로 신청했다. 가족과 부처님만 의지한 평생을 살아오신 시어머님이 무릎관절염으로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시어머님 간병도 제대로 못하고 사별까지 했고 49세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심한 통증을 있던 어머니가 무료수술을 받아 다시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실수 있나... 그것도 병원비 수술비 없이 무료로 지원을 해주신다니. 나는 실로 불자임이 자랑스러웠다.

어머니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현대불교신문에서 풀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지식들의 고통까지 덜어주는 것과 같다. 동인천길병원 이수찬원장님의 좋은 뜻이 행하고 계시는 보시행에 질로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 동인천길병원 8층 입원실에 계신 시어머님 침상 옆에서 이 글을 쓴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뒤적이며 한자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러면서 결심한다. 회부하신 시어머님 모신 시어머님 극락왕생을 기원하러 천도재를 모시기 위해 함께 절에 가겠다고...

본각당(용화선원 신도)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 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7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 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 24초)
3. 아미타경(13분 30초) 4. 화엄경 약한계(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광경(5분 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상경(2분 49초)
9. 무상경(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 02초)
11. 금강경(33분 15초) 12. 반해심곡(13분 07초)
13. 천수경(18분 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 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 00초) ... 55. 화심곡(9분 05초)
56. 탑돌이(8분 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7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9번 천수경 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급처 : 법운 흥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1 (이금주 이회숙)

080-900-0101
032-343-2267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상문
■저서 음양감시보감/법마로 물마로/세계를 이끌어갈 한국·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환의 원리 병 증상은 수습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월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한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 ▶ 첫 째 :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 ▶ 둘째 :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 ▶ 셋 째 :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 안되는 증상 등등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2층 선 선대방역에 설치하고 민 줄구로 나오셔서 4거리 건너편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인 50m 정도 들어오셔서 (흥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양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 02)861-5851~2 / FAX : 02)861-5852